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이보영 "캐릭터 부담되지만 욕심났어요"

KBS '내 딸 서영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품은 '얼음공주' 역



15일 첫선을 보이는 '내 딸 서영이'는 무능한 아버지를 원망하며 부녀의 연을 끊어버린 딸과 최고가 되고자 하는 아버지를 통해

"제가 정말 잘 해야 하는 캐릭터라 욕심이 많이 났어요." 배우 이보영(사진)이 '내 딸 서영이'를 택한 이유를 밝혔다.

서영은 당초 최정원이 맡기로 한 역할이었으나 최정원이 스케줄 문제로 출연을 번복하면서 이보영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부모를 미워한다는 자체가 나쁘게 보일 수 있지만 서영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려면 내가 잘 표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너무 냉정하고 감정표현이 없어서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 역할이에요. 웃지 않고 표정 자체가 없는 장면이 6부까지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영이의 많은 상처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족을 제외한 모두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캐릭터 설정 자체가 짧은 시간 안에 작품에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이보영은 "'냉골당'은 언제봐도 기본 좋고 따라가기 쉬운 내용인데 우리 작품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서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부담감을 내비쳤다.

이보영은 아버지 삼재(전호진)와 인연을 끊고 사는 딸 서영을 연기한다.

이보영은 "서영이가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는 캐릭터"라며 "보통 사람들의 정서상

생방송 경연의 심사를 맡는다. 생방송 경연에서는 심사위원 점수 50%, 시청자 문자 투표 50%를 합산해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가린다.

예선과 패자부활전을 거쳐 생방송 경연에 참여하는 팀은 몽니, 장미여관, 악동, 트랜스

픽션, 피터팬컴플렉스, 슈퍼키드, 피아, 로맨틱핀치 등 총 8팀이다.

이들은 두 조로 나눠 실력을 겨룬다. 첫 생방송 경연에는 김태원이 이끄는 록 밴드 부활이 출연해 축하공연을 펼친다.

연습뉴스

장혜진·김중서 '탐밴드 2' 심사위원 참여

가수 장혜진과 김중서가 KBS 2TV 밴드 서바이벌 프로그램 '탐밴드 2'의 생방송 경연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12일 제작진에 따르면 이들은 베이스리스트 송홍삼, 기타리스트 김세환, 심어송라이터 정원영과 함께 15일 밤 11시25분 시작하는

생방송 경연의 심사를 맡는다. 생방송 경연에서는 심사위원 점수 50%, 시청자 문자 투표 50%를 합산해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가린다.

예선과 패자부활전을 거쳐 생방송 경연에 참여하는 팀은 몽니, 장미여관, 악동, 트랜스

픽션, 피터팬컴플렉스, 슈퍼키드, 피아, 로맨틱핀치 등 총 8팀이다.

이들은 두 조로 나눠 실력을 겨룬다. 첫 생방송 경연에는 김태원이 이끄는 록 밴드 부활이 출연해 축하공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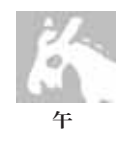
연습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3일(음 7월 27일 丁丑)



36년생 제 구실을 해야만 한느니라. 48년생 가장 급한 것부터 우선 하자. 60년생 솜아 나온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2년생 미끄러져 낙상할까 두렵다. 84년생 한 번



42년생 의문이 생긴다면 풀고 넘어가야만 한다. 54년생 초대받는 기쁨에 머무르지 말고 응하라. 66년생 징후를 무시한다면 위태로움에 직면하게 되리라. 78년생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해야 차질이 없겠다. 행운의 숫자 : 13, 88



37년생 목적이식이 분명해야겠다. 49년생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 61년생 평가 중이니 곧 조치가 있을 것이다. 73년생 깊이 있게 자기를 돌이켜 봐야 한다. 85년생 허락을 받고 행하는 습관을 들이자. 행운의 숫자 : 70, 05



43년생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의미가 있다. 55년생 성숙한 모습을 보이자. 67년생 직설적인 표현이 솔직해서 좋다. 79년생 원칙과 예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깨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6, 82



38년생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밖에 없다. 50년생 상대와 매우 가까운 관계가 되겠다. 62년생 약간의 지연되었으나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74년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발전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6, 41



44년생 깊이 있게 도색해 보아야 좋은 방안이 생긴다. 56년생 중요한 기회들이니 잘 활용하라. 68년생 소망하는 바가 많다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80년생 빈틈을 보이지 않는 편이 나은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91



39년생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행했을 때 훨씬 진보적이다. 51년생 명쾌하게 정리될 것이다. 63년생 잡음이 일지 않도록 반드시 원리 원칙대로 처리해야만 한다. 75년생 경제적인 방법과 기교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77, 98



45년생 차분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다. 57년생 고강도만이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편견. 69년생 서로 간에 신의로써 이해해야 하느니라. 81년생 교대로 순환시켜 봤을 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8, 64



40년생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52년생 도움이 될 만한 것만 취합해보자. 64년생 즐겨 쓰는 방법대로 이행해야 실수하지 않느니라. 76년생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시야의 확보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60, 85



46년생 한쪽의 말만 듣고서는 치우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58년생 상대의 배후에 있는 인맥들을 살펴보아라. 70년생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자. 82년생 흰색 배우이 실력을 쌓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4, 90



41년생 위아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가 있겠다. 53년생 과학적인 조건이 제안될 수도 있다. 65년생 대강 목표를 겨누어도 틀림없겠다. 77년생 결단력을 보일 수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8, 09



47년생 원료가 좋아야 좋은 제품이 생산되는 이치이다. 59년생 크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만 길이 열린다. 71년생 잘만 활용하면 으뜸이 될 수 있다. 83년생 갑자기 잠만 만났다가 곧 헤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2, 3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with program listings for various times.

굿모닝 잉글리쉬 What do you do in your office?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A: What do you do? B: I'm an office worker. A: What do you do in your office? B: I'm Dr. Choi's personal secretary. A: 무슨 일을 하세요? B: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요. A: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B: 전 최 박사님 개인 비서예요. * 사무실 근무 여직원 = office lady -- (별로 : ×) = office worker--(○) = business girl --(×)

한자이야기 人生朝露(인생조로) 사람 인, 날 생, 아침 조, 이슬 로 인생조로(人生朝露)란 인생은 아침이슬처럼 짧고 덧없다는 말이다. 전한 무제(武帝)의 사신으로 흉노(匈奴)의 땅에 간 소무는 그들의 내분에 휘말려 포로가 되었다. 항복을 거부한 소무는 북해(北海) 근방의 한 섬으로 추방되었다. 이에 투항한 한나라 명장 이릉이 찾아와 그를 위로하며 "자네가 이렇게 절조를 지킨다고 해서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인생은 아침이슬과 같다고 하니, 정말 덧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가?"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출처] 『한서(漢書)』 <소무전(蘇武傳)>

니하오 풍구위 賣關子 mài guān zi 핵심을 말하지 않고 빙빙 돌리다 賣關子是 옛날 이야기꾼이 긴 이야기를 할 때, 고조되는 부분에서 잠시 흐름을 멈추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조바심이 나도록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關子是 소설, 연극 등에서 최고조의 클라이막스를 말하는데, 賣關子에 쓰인 關子是 또 다른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關子是 원래 중국 송대의 화폐와 어음입니다. 군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인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 훗날 상품으로 대신하거나 독점권을 주기 위해 關子를 발행했습니다. 상인 입장에서 보자면 돈은 썼는데 물건을 못 받은 상태이죠. 그래서 關子를 팔았다는 말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이윤을 남기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클라이막스에서 빙빙 돌려 말하는 것으로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하오우 니혼고 ポケットが寒いよ。 주머니가 비웠어요 A: 高い物はだめよ。ポケットが寒いよ。 B: 僕が着るから、たくさんどうぞ。 A: ありがとう。宝くじでも当たったの。 B: お小遣いをもらって僕が暖かいよ。 A: 비싼 것은 안돼요, 주머니가 비웠어. B: 내가 한턱내니까, 많이 드세요. A: 고마워, 복권이라도 당첨 됐어? B: 용돈을 받아서 주머니가 두둑해요. 高い物 비싼 것 ポケットが寒い 주머니가 비다 僕が着る 내가 한턱내다 宝くじに当たる 복권이 당첨 되다